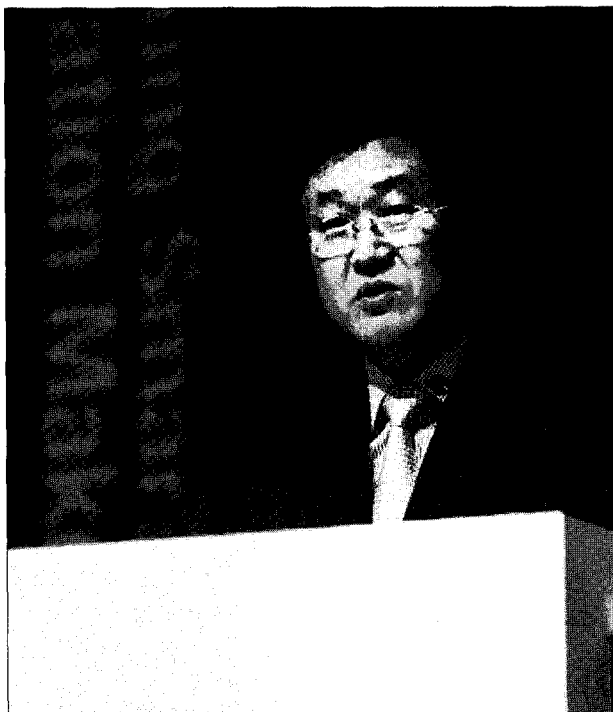




●●● 취재 | 박지연 기자 |



▶박상진 부사장은 "세계 최고 기능과 편의성을 강화한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 삼성디지털이미징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지털이미징(대표·박상진 www.samsungcamera.co.kr)이 신제품 라인업을 보강하며 2012년 매출 5조원 달성 목표와 프리미엄급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관한 비전을 밝혔다.

삼성디지털이미징은 지난 3월 31일 삼성 서초타워에서 '2009년 상반기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24mm 초광각 10배 줌 기능을 갖춘 'WB550' 등 13종의 콤팩트 디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박상진 부사장은 "삼성 카메라 사업 30주년을 맞는 올해 독립 계열사로 새출발함과 동시에 디지털카메라를 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기능의 프리미엄급 디지털카메라 제품을 중심으로 카메라 사업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2012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4년 안에 3배 이상 키우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다.

삼성디지털이미징은 올해 대부분의 카메라 업체들이 전년 대비 역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해외 영업망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업 체제를 구축하고 강화된 제품군을 선보여 전 세계 시장 디카 점유율을 지난해 10.4%보다 2% 끌어올린 12.5%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시장은 고성능 하이엔드급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로 보급형 DSLR 시장과 하이줌 카메라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올해 시장점유율 44%(지난해 35%)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올해 종합 전자업체인 삼성전자의 강점을 활용해 TV, PC, 프린터 등 소비자가전(CE) 및 IT 기기와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노트북PC와 디지털액자, MP3P, 외장 하드디스크 등 관련 제품과의 패키지 판매를 통해 차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상진 부사장이 모델들과 함께 카메라 신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삼성디지털이미징이 지난 3월 31일 삼성 서초타워에서 '2009년 상반기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13종의 신제품라인업을 첫공개 했다.



▶카메라 신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한 삼성디지털이미징의 박상진 부사장



▶모델들이 삼성의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삼성디지털이미징은 하반기 중 공개 예정인 자체 DSLR 제품군인 '하이브리드'의 독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상진 부사장은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는 DSLR 시장에서는 기술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위한 렌즈를 독자 개발 중이며, 핵심 부품인 CMOS 센서와 이미지 처리 칩도 기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16.6mm 초슬림 바디와 고급스러운 메

탈 재질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VLUU ST50', 3인치 대형 AMOLED 스크린과 편리한 휠 타입의 스마트 컨트롤 다이얼을 내장한 'WB1000', 메모리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클래식한 미니 대시보드를 갖춘 'VLUU WB1000', 24mm 초광각 광학 10배 줌 기능을 적용한 'WB550/WB500' 등이다.

회사는 기능면에서 셔터속도와 조리개, 노출 등을 조작하여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풀 매뉴얼 모드'(WB1000), 터치방식으로 조작하는 '햅틱 기능'(ST10), 자주 찍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스마트 얼굴인식'(ST10/PL10) 등을 신제품에

적용했으며, 재질과 디자인도 대폭 바꿨다.

박상진 부사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만드는 것이 삼성디지털이미징의 제품 철학"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카메라 업계가 모두 어렵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 독립회사의 전문성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삼성디지털카메라의 일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